

종합·해설

정부 조직 18→14개로 축소될 듯

13일째 확정...해수부·정통부 등 통합 가능성 높아
검찰·경찰·국세청 제외 외청 상당수는 부처 흡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현행 18부로 돼 있는 중앙 정부조직을 14부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등 폐지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부처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어 막판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함께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중요 외청을 제외한 모든 외청들을 각 부처로 흡수한다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며 “어른 수렵과정과 국회에 대한 설명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곧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당선인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급주중 조직개편안을 보고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8개 부처 가운데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는 다른 부로 흡수통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농림부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에 각각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통신부는 문화부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에 기능별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산자부로 통합될

경우 국부위원을 최소 15명 뛰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등을 이유로 무임소 장관인 정부장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가 제각기 존속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고 있어 막판에 부처 수가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 김형오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 해양부의 반발이 가장 심한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인수위에 로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는 외청 개편과 관련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을 제외한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병무청, 방위산업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문화체육관광,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5개 외청을 소속 부처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형오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 해양부의 반발이 가장 심한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인수위에 로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는 외청 개편과 관련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을 제외한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병무청, 방위산업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문화체육관광,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5개 외청을 소속 부처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형오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 해양부의 반발이 가장 심한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인수위에 로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는 외청 개편과 관련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을 제외한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병무청, 방위산업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문화체육관광,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5개 외청을 소속 부처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형오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 해양부의 반발이 가장 심한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인수위에 로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아침 도시락 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회의에 참석한 인수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김밥을 먹으며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 중심’ 실무형 총리 가닥

■ **李 당선인, 어떤 총리 카드 뽑을까?**
‘비정치인’ 안병만·한승주·정운찬 등 고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인선 기준을 ‘일 중심’에 두고 막바지 인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또 국정운영의 중심 축을 내각으로 하고, 청와대에는 대통령과 내각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총리인선 문제에 대해 “이 당선인이 정치적 고려없이 일 위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인선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전 대표와 심대복 국민중심당 대표가 총리직 고사의 뜻을 분명히 하며 따라 이 당선인이 4월 총선과 당내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

할 ‘정치인 총리’ 카드를 포기하고 ‘비(非)정치인 총리’로 인선의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현재 비정치인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과 한승주 고려대 총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이 있다. 송병두 서강대 총장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도 물망에 올라 있다.

이 당선인의 테니스 멤버이기도 한 안병만 전 총장의 경우 대학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몇 안되는 인물인데다 총경(총복 괴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

한승주 고려대 총장 서리는 김영삼 정부 시절 외교부장에 이어 현 정권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인물로, 대미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이란 상징성 이외에 숙명여대의 혁신을 이끈 대학 CEO(최고경영자)로서 복잡다단한 인수위를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송병두 총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이 당선인의 ‘경제관’을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경제에 밝은 총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보군에 올라 있다.

주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내각 중심으로 국정운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조직도 줄이고 직급도 낮추고, 비서실은 국정에 협조하며 (대통령과 내각간) 의사 전달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산업 규제 풀겠다”

李 당선인, 은행·증권 금융사 대표와 간담회
인수위, 韓銀에 물가안정 적극적 활동 당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9일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 대표 간담회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것보다, 규제를 없애는 것 없애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활기를 띠고 살아남기 위해 금융계가 기여할 바가 있다.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선진화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한국의 금융(산업)이 많이 발전했으나 여러 부문에서 세계 30, 40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인베스트(투자) 기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자신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소개하며 “(당시) 정부와 대화해 규제도 풀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서울시와 정부가) 원만한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아 여러 번 말했더니 ‘어떻게 하든 어쩔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며 거탄없는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한편 인수위는 9일 한국은행과 통화정책 협의에서 한국은행에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행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을 초과 유동성 관리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현재 가장 중요한

한나라당, 인수위에 ‘쓴소리’

“조율되지 않은 정책 혼선... 본연의 활동 집중” 충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9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중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인선 위주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을 앞

다. 현 정부로부터 업무 인계·인수 받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쏟아내고, 이것이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간재 대표는 “인수위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인수위가 본연의 활동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기업유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정 의원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경제인권을 기본 중계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면서 “좀 더 기업유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에서 다루고 있는

광주시 의료안내

“아름다운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원”

<h3 style="text-align: center;">김평남내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남동 112-1 (남동신당에서 전대병원까지가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r/> <h3 style="text-align: center;">김영갑내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r/> <h3 style="text-align: center;">김정길내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3 style="text-align: center;">김영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r/> <h3 style="text-align: center;">김환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r/> <h3 style="text-align: center;">김정길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3 style="text-align: center;">김영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r/> <h3 style="text-align: center;">김환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r/> <h3 style="text-align: center;">김정길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3 style="text-align: center;">김영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r/> <h3 style="text-align: center;">김환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hr/> <h3 style="text-align: center;">김정길성형외과</h3> <p style="font-size: 12px;">*주소: 광주시 동구 동서 428 (동서신당에서) 버스정류장 옆 ☎ 062-233-7575~6</p>
--	---	---	---